

전일동향

전일대비 4.40원 상승한 1,304.80원에 마감

3일 환율은 전일대비 4.40원 상승한 1,304.8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0.60원 상승한 1,311.00원에 개장했다. 간밤 달러 강세 등을 반영해 급등 출발한 환율은 역외 달러-위안 하락에 연동되며 상승폭을 일부 축소했다. 오후 장에서 환율은 네고물량 유입으로 1,304원 부근까지 레벨을 낮췄고 1,304.80원에 마감했다. 장중 변동 폭은 7.8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18.14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311.00	1312.40	1304.60	1304.80	1308.80
	엔화	915.92	924.10	907.75	910.88	-
	유로화	1422.97	1436.99	1421.32	1424.98	-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2.2	-7	-13.6	-25.4
	결제환율(수입)	-1.78	-5.89	-11.64	-21.88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금일 전망

강달러 지속에...1,310원대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3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304.80) 대비 5.90원 상승한 1,308.4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 금일 환율은 매파적인 FOMC 의사록으로 인한 강달러 지속에 상승이 예상된다. 12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은 고금리를 예상보다 오래 유지한 뒤 2024년이 지나기 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. 또한,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은 기준금리가 고점이거나 고점 부근 이라는데 동의했지만 소비와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기 위해 제약적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. 전반적인 의사록 톤 자체는 매 파적이라는 해석이 강했고, 이에 연준의 3월 금리인하 배팅이 축소되며 달러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금일 환율은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. 아울러 전장과 마찬가지로 코스피 하락 및 연초 위안화 약세 또한 금일 환율 상승 분위기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. 다만, 수출업체 네고물량 유입 등은 상단을 경직할 것으로 예상된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306.00 ~ 1315.00 원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935.78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.90원 ↑
	■ 美 다우지수 : 37430.19, -284.85p(-0.76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98.38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-10253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